

익산시-포네이처스, 투자협약 맺어

국가식품클러스터 약 1400평 부지에 44억원 투자·올 하반기 생산공장 준공 예정

익산시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식품시장을 선도할 동력을 확보한다.

익산시는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포네이처스와 44억 원 규모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백승하 전북특별자치도 농식품산업과장, 김덕호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 이광석 ㈜포네이처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포네이처스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부지 4,553㎡(약 1,400평)에 공장을 신축하고 제조 설비를 도입한다. 익산시와 전북자치도,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은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재정적

으로 지원한다.

㈜포네이처스는 특혜제품인 8곡 누룽지를 품은 새로운 개념의 바비큐 삼계탕과 가정간편식(HMR) 제품을 개발·생산하고자 공장 설립을 결정했다.

공장 신축은 올해 착공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준공되면 41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포네이처스는 파트너사인 ㈜더온, ㈜푸드앤디, ㈜한청씨엔에스와 함께 8곡 누룽지 삼계탕 500개(900만 원 상당)를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기탁에 참여한 업체들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

고자 물품을 기부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익산행복나눔마켓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광석 대표이사는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국내 최초 바비큐 삼계탕을 세계로 판매하는 기지를 익산에 만들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며 “간편식 등 변화하는 식품산업에 맞춰 끊임없이 도전해 국내의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네이처스는 전통 삼계탕에 8곡 누룽지를 접목한 현지 맞춤형 삼계탕과 밀기트편만 아니라 케이-푸드(K-Food)의 세계화를 위한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또한 의미 있는 나눔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사즉생의 각오로 새만금신항을 지키자”

김영일 군산시의원, 5분 발언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은 14일 제2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사즉생의 각오로 군산새만금신항을 지켜내자!’ 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김영일 의원은 2025년 군산시가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나며 그것은 군산시의 미래가 달린 군산새만금신항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서두를 열며 새해 벽두부터 동서도로 소유권이 또 김제로 결정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우리는 지난날 새만금은 당연히 강력도까지 군산시의 소유권이 될 것이라고 막연하고 무책임한 주장만 해온 사이 김제시는 어떻게든 새만금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주민들과 단합하여 새만금2호방조제-만경7공구까지 김제의 소유권으로 빼앗아갔고 급기야 이제는 새만금신항까지도 김제 것이라고 강력하게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으며, 바다의 지역경계선인 해양경계선의 기준까지도 무력화시켜 신시도 무너도 관리도 일원화지도 차지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지경인것은 군산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라 단언한다며 만약, 군산새만금신항 마저 뺏긴다면 군산은 항구도시로서 더는 희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도지사는 군산 편이 아님이 확연하게 밝혀지고 있는데 그 이유



는 2026년 새만금신항의 5만톤급 2선 석 준공과 관련 2024년 중순쯤 지사의 제안으로 해양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여 자문위원단의 의견을 들어서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에 따른 관리 주체 의견을 해수부장관에게 제출하기로 했는데 자문위원단 의견은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하부항으로, 하나의 군산항으로 가야한다’고 의견을 모았음에도 도지사는 그 의견을 강그리 무시하고 해양수산부에 중립의견을 냈다며 이는 군산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군산시민들께 즉시 공개사와 해야 한다면서 지사는 즉시 자문위원단의 의견 내용을 공개하고 사실 그대로 해수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또한 지사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놓고 뒤로는 새만금관할권을 김제시에 주려고 하는가 본다면 당장 또 동서도로가 넘어갈 수 있는데 단체구성 제안을 하려면 서로 관할권 주장을 멈추게 해놓고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나고 했다.

김영일 의원은 우리 군산시민 모두가 결집하여 사즉생의 각오로 새만금신항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자고 주장하면서 △전북자치도와 도지사는 새만금 통합방안을 제시할 것, △전북자치도지사는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에 따른 자문위원단의 의견 내용을 즉시 공개할 것, △새만금특별자치단체 구성하기 전에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주장부터 멈추게 할 것, △도지사는 김제 편들지 말고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전북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한경봉 시의원 “방치된 옥봉석산을 복구하라”

군산시의회, 제2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5분 발언’ 진행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14일 제2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어쩌다 이렇일이 27, 군산시는 방치된 옥봉석산을 복구하라’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옥서면 옥봉리에 위치한 옥봉석산은 1978년부터 채석이 시작되었는데 본격적인 채석은 1989년부터 이루어졌으며 1989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대우건설에서 지하 12m까지 채석하고 복구비용으로 17억 원을 예치하였고, 2003년 9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동양건설에서 지하 44m를 더 채석한 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89억 원을 들여 복구를 완료했다면서 군산시 부지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1억 3천 4백만 원을 예치한 바 있다며 2014년 군산시는 복구예치금 20억 원을 활용하여 대항복구를 시행하였으나, 사토장과 수목식재를 일부만 진행한 후 현재까지 대부분은 그대로 방치하였는데 그 이유는 당시 사유지였던 옥봉석산 채석면적 7만6,400㎡ 중 4만 8,299㎡를 남북철강과 등가교환하여 사유지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군산시는 2008년부터 국가예산을 확보하여 건설기계능능시험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었다며 2014년 산업연구용지였던 옥봉석산 부지에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국방부와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처분되지 대체용지가 필요하게 된다고 했다면서 이때 남북철강이 소유한 나포면 나포리 임야 및 공장부지를 토지매매 및 등가교환을 추진하여 매입하



고 최종적으로 건설기계능능시험장 구역을 설치하였다며 등가교환을 추진한 옥봉리 산 171-16은 옥봉석산 복구예정지로 남북철강이 등가교환을 추진하면서 소유자의 복구의 무 승계가 약속된 곳이나 사업장 이전 과정에서 남북철강이 부도를 맞게 되고 옥봉석산 복구예정지는 경매 및 2차례 매각으로 2021년부터 ㈜엠비티 소유가 되었는데 이전 소유자인 남북철강은 2016년 교환부지에 대한 복구설계를 승인받았으나, 복구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2017년에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옥봉석산 복구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고 이후 남북철강은 군산시의 사업승인 지연 등의 이유로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채무불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3심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일부승소하였다며 군산시는 패소하여 배상금 5억8,700만원, 소송비용 1,500만원, 총 6억원 가량을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하였는데 옥봉석산은 10여 년간 방치되었고, 총 복구대상 면적에 물이 유입된 상태에서 ‘산지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사유지 최종소유자가 4만8,299㎡, 군산시가 사유지 2만8,010㎡를 각각의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나 아직까지 어떤 복구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매립해야 할 토사량 62만㎡를 기준으로 대략 1㎡당 1만5,000원 기준으로 비

율을 산출하면 총 사업비는 약 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시일이 지날수록 사업비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는 옥봉석산 복구를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며 동양건설이 복구를 끝낸 2011년부터 2014년 등가교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충분히 사유지 복구가 가능했다면서 등가교환이 추진된 이후라도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방치되지 않고 군산시 소유지 1만 평만이라도 바로 복구했다면 복구비도 줄이고 시민을 위한 사업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지적하며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군산시는 현재 산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군산항 항로의 충분한 준설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매년 300만㎡의 준설토를 투기해야 하는데 투기장이 부족하여 2028년 완공예정인 제2준설도 투기장만 바라보며 손을 놓고 있는 상태로 그동안 투기장이 부족하여 준설량이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30만㎡정도만 준설하여 군산항의 항만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급란도 투기장의 남은 투기여력은 72만㎡뿐으로 한 해 평균 발생되는 300만㎡의 준설토를 활용하면 옥봉석산 복구에 필요한 약 62만㎡ 토사는 충분하고도 남는다면서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산지 복구 토석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고, ‘토양환경보전법’에 정하는 오염기준에 적합하면 된다면 급란도의 준설토를 옮겨 옥봉석산 복구에 사용하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며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안전한 도시는 걷기 좋은 도시여야”

윤세자 군산시의원, 5분 발언

군산시의회 윤세자 의원은 14일 제2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전한 도시는 걷기 좋은 도시여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윤세자 의원은 지난해 한국교통공단이 발표한 전국 교통안전지수를 보면 인구 30만 명 미만의 도시 중 군산시는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보행자와 자전거 및 이륜차를 타는 사람들이 사고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보행자 보호를 위한 시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산시의 영역별 안전지수는 사업용 자동차 C등급, 교통약자 D등급, 운전자 D등급, 도로환경 D등급으



로 심지어 자전거 및 이륜차 그리고 보행자 영역은 최하위 등급인 E 등급을 받았다. 한편 같은 조사에 따르면 군산시의 도로연장율은 전국에서 13위, 전복에서 1위로 즉 군산시는 교통의 접근성은 좋은데, 안전성은 나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윤세자 의원은 △군산시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과 취약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 과속 방지 시설 설치, 보행자 안전 구역 확보 등 시설 확충과 정비에 나설 것, △군산시는 ‘군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계 공무원들과 시의원, 교육계, 시민단체, 장애인 단체, 교통규제 위원 등 전문가들이 모인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조속 구성할 것, △시는 도로 설계 시 자동차보다 사람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온라인 신청서비스가 14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시행된다.

군산시는 기존에는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소음대책지역 행정복지센터 및 시 환경정책과에서 방문 및 우편을 통해야만 가능했으나 이번부터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정부24’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검색한 뒤 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첨부 서류를 증빙하여 접수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신청이 완료된다.

또한, 온라인 신청은 개인정보(본인) 신청이 원칙으로, 세대 대표자가 일괄 신청하거나 대리인 신청, 상속인 신청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는 2025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2월 28일까지 받고 있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취약계층 아동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익산시가 취약계층 아동의 꿈을 응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기본·필수·맞춤서비스 38종으로 구성된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 입산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사업이다. 기본 분야로 정기적인 가정방문 등을 통한 사례관리와 상담을 진행해 맞춤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필수 분야로 △진강검진(성장·발달 스크리닝) △영양교육 △부모상담 등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13종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춤 분야는 대상자의 필요사항에 따라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발달 △가족통합으로 이뤄진 4개 항목에서 △밀착한 지원 △언어치료 △문화체험 △가족힐링캠프 등 24종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